





구림도기 가마터는

영암읍에서 목포로 가는 819번 국도변에서 약 500m 떨어진 구릉상에 있다. 유적은 8~9세기 대규모 도기 제작장으로 1986년 1996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이 1·2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하면서 그 역사적 중요성이 밝혀졌다.

이곳은 원래 서남해로 연결되는 곳으로서

운송이 편리하고 주변에 좋은 질의 점토와 땀감이 풍부하여 도기 생산지로서 알맞은 여건을 갖춘 곳이다.

가마구조는 아래쪽에서 경사면을 이용해

굴을 파고 들어간 반지하식 단실가마로 요상평면은 밑부분이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독사머리형이다. 주로 돌대장식대호, 사각편병, 주판알 모양의 유병 등 일상 생활용기류와 녹갈·황갈·흑갈색의 시유도기가 출토되었다.

영암구림리요지 정보

지정번호 : 국가사적 제338호

소재지 :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319외

면적 : 11,289㎡(요지일원)

시대 : 통일신라시대

지정연월일 : 1990년 10월 26일